

# '한국대표' SK...세계에 'ESG 비전' 알린다

창립 50돌 SK입업 성과 등 소개 '그린 포레스트' 독자 부스 운영  
故최종현 회장의 조림사업 중심 국내 1호 탄소배출권 확보 결실 "8년내 세계 탄소감축량 1% 기여"



SK그룹의 산림 조성 및 탄소 감축 노력을 하나의 여정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민 SK입업의 전시부스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 SK의 탄소 저감 노력이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소개된다. 사진제공 | SK

SK그룹이 SK입업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산림총회(WFC)에 참여해 그동안 진행해 온 탄소 감축 노력과 국내 1호 탄소배출권 확보 그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

SK그룹에 따르면 SK입업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홀에서 개막한 제15회 WFC에서 지난 1972년부터 50년간 국내외에서 진행한 각종 조림사업 성과와 탄소배출권 플랫폼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6일까지 열리는 이번 WFC에는 국내에서 대기업 중 유일하게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가 한국 기업을 대표해 독립 부스를 만들어 참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등 탄소저감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서울 총회에는 143개국에서 1만여 명의 환경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 ●탄소배출권 확보한 국내 1호 기업

SK입업의 전시부스인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은 SK그룹의 산림 조성 및 탄소 감축 노력을 하나의 여정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SK그룹이 조림 사업을 해 온 총주 인등산을 모티브로 전시관 전체를 하나의 숲속길처럼 조성했다. 중앙부에는 나무 모형(생명의 나무)을 설치했으며, SK의

탄소 저감 노력을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구성했다.

SK입업은 이번 WFC에서 조림을 통한 다양한 탄소 저감 사업을 소개한다. 대표 사업은 강원도 고성인 황폐지에 자작나무를 비롯한 조림수 25만 그루를 심어 진행 중인 A/R CDM(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이다. 숲이 흡수한 온실가스를 측정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사업으로, SK는 2013년 유엔기후변

화협약(UNFCCC)의 최종 인가를 받아 숲 조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국내 1호 기업이 됐다.

### ●2대째 이어가는 친환경 사업

SK그룹의 조림사업은 고 최종현 회장이 1972년 당시 서해개발주식회사(현 SK입업)를 설립하면서 시작했다. 최 회장은 1960~70년대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민둥산이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

SK입업 히스토리	
1972년	서해개발(현 SK입업) 설립
1974~1979년	충주, 천안, 영동에 조림지 개설
2010년	최종현 회장 '숲의 명예전당' 헌정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A/R CDM 등록
2017~2019년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량을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
2021년	해외산림분야 탄소배출권 사업, SK그룹-산림청 '탄소중립과 ESG경영' 협약

겨 천안 광덕산(480.9ha)을 시작으로 충주 인등산(1180ha), 영동 시항산(2364.8ha) 등 총 4100ha의 황무지 임야를 사들여 숲을 조성했다.

최 회장은 임야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수도권에서 먼 임야를 조림지로 택했다. 50년 전만해도 황무지에 가깝던 산간 임야는 현재 총 400만여 그루 나무를 품은 울창한 숲으로 변신했다. 그 규모는 서울 남산의 약 40배 넓이에 달한다.

SK측은 "최종현 회장의 조림사업은 환경과 인재육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림사업 등 친환경 사업 의지는 최대일 SK그룹 회장의 ESG 경영과 탄소 감축 노력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SNS인 '링크드인(LinkedIn)'에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시작한 산림녹화 사업을 소개하며 SK 친환경 사업의 오랜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K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 모델 혁신과 투자를 진행 중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4월 5000억원 수주 '월간 최대' 현대일렉트릭 선제적 투자 결실

주력 중동시장 수주실적 1년새 433% 늘어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텍사스주에 에너지로부터 수주한 초고압 변압기. 사진제공 |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그룹의 전 기전사기 및 에너지 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2017년 출범 이후 월간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월 한 달간 전력 및 배전, 솔루션 사업 등에서 총 5000억 원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증가와 중동 시장의 수주 회복세, 현대일렉트릭의 선제적 투자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현대일렉트릭의 설명이다.

특히 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미국과 중동에서만 240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에 에너지로부터 1600억 원 규모의 변압기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텍사스주에너지는 에너지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세계 1위 기업이다. 현대일렉트릭은 115kV~52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2024년부터 미국 태양광 발전소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외 주력시장인 중동에서도 지난해 4월과 비교해 433%가 늘어난 8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기존 고객들의 초고압 전력기기 발주가 잇따랐다. 유가 상승으로 투자 동력을 확보한 주변 중동 국가들로부터 발전 설비 수주가 이어졌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해외 법인 설립 및 현지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등 선제적 투자가 호실적의 원동력이 됐다"며 "앞선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올 들어 4월 말까지 전년 대비 88% 늘어난 총 1조 3748억 원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인 2조 933억 원의 65%를 달성했다. 원성열 기자

## MS 손잡은 LS "디지털 전환 가속"

그룹 IT인프라, 클라우드 체계 전환 25개국 100여곳 직원 시너지 극대화

LS그룹(회장 구자은)이 그룹 전반의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S는 그룹 내 IT 서비스 기업인 LS ITC를 통해 향후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고, 협

업 플랫폼 팀즈와 MS 365 등을 연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애저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MS 365는 윈도우, 오피스, 팀즈, 원드라이브, 문서보안 등을 통합한 MS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이다.

팀즈는 전 세계 일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협업플랫폼이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해 원격·비대면 근무에 최적화되어



LS ITC 조의제 CEO(왼쪽)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는 대표. 사진제공 | LS

있다.

LS는 기존 IT 인프라를 MS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전 세계 25개국 100여 곳에 있는 LS 임직원들이 그룹의 데이터 자산을 실시간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그룹 전반의 업무 시너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LS는 올해 5월부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정기협약체제를 구성해 LS전선, LS일렉트릭, LS-Nikko동제련, LS엔트론 등 주요 계열사 사업에 MS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접목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의제 LS ITC CEO 겸 그룹 CIO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 HMM '2021 ESG 보고서' 발간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지속가능경영 추진 성과와 계획을 담은 '2021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보고서는 비재무 요소인 ESG를 균형 있게 고려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ESG 핵심이슈에 대한 HMM의 활동 및 성과를 수록했다. HMM은 2019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수립한 이후 2020년에는 ESG 중심의 체제로 개선했으며, 2021년에는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3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ESG 각 분야별 목표를 수립했다. HMM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1.5%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4일(수) 음력: 4월 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b>행운색:</b> 흰색 <b>길방:</b> 서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검정 <b>길방:</b> 북	<b>행운색:</b> 검정 <b>길방:</b> 북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청색 <b>길방:</b> 동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켜 있으면 큰 곤란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바라는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과 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b>행운색:</b> 청색 <b>길방:</b> 동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검정 <b>길방:</b> 북	<b>행운색:</b> 노랑 <b>길방:</b> 중앙	<b>행운색:</b> 적색 <b>길방:</b> 남	<b>행운색:</b> 흰색 <b>길방:</b> 서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에 이륙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대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자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 승진,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리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 틀 쓰라.

오늘의 날씨			4일(수)		
서울	0/0	11 25	인천	0/0	12 21
강릉	0/0	19 29	대전	0/0	9 26
광주	0/0	10 26	대구	0/0	10 27
창원	0/0	10 23	제주	0/0	13 21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기온
			날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1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